

‘급한 불’ 끄고 ‘5강 불씨’ 살렸다

KIA, 한화에 3-1승...8연패 SK에 2경기차 5위

고효준 4.1이닝 1실점...한승혁 12경기 무실점 ‘3승’



‘호랑이 군단’이 급한 불을 끄고 ‘가을 잔치’로 가는 귀한 1승을 챙겼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3연패에서 탈출했다. 1.5경기차까지 쫓아왔던 한화의 추격을 뿌리친 5위 KIA는 SK가 이날 8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6위와도 두 경기차를 유지하게 됐다. LG는 4연승을 달리며 2.5게임차로 4위를 유지했다.

1회부터 매 이닝 양팀 타자들이 출루에 성공했지만 6회가 넘어가도록 홈을 밟은 주자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1회초 KIA가 한화 선발 이태양을 상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신중길의 중전안타에 이어 김호령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김주찬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이범호의 적시타로 1-0이 됐다.

2회 한화가 균형을 맞췄다. KIA 선발 고효준이 첫 타자 이양기를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김희성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양성우의 볼넷으로 1사 1·2루가 됐고 장민석의 좌전안타까지 이어지면서 1-1이 됐다. 3루까지 진루를 시도한 1루 주자 양성우가 심판 합의 판정 끝에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실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KIA의 빠른 투수 교체가 주효했다. 고효준이 5회말 선두타자 정근우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뒤 허주석의 타구를 2루에 약속구를 하면서 무사 1·2루에 몰렸다. 송광민의 희생번트 뒤 김태균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면서 1사 만루가 되자 KIA가 먼저 마운드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박준표를 투입한 KIA에 맞서 한화는 로사리오를 대타로 내보냈지만 결과는 병살타. 김기태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그리고 기싸움을 이어갈 선수로 ‘파이어볼러’ 한승혁이 선택됐다. 1사에서 김희성을 상대한 한승혁이 볼넷에 이어 장민석에게 텍사스 안타를 허용했지만 대타 차일

◇18일 대전경기

KIA	100	000	200	3
한화	010	000	000	1

▲승리투수 : 한승혁(3승1패1세이브) ▲세이브 : 임창용(3승3패11세이브) ▲패전투수 : 윤규진(7승7패1세이브)



대타로 나와 안타를 때려 낸 KIA 루키 최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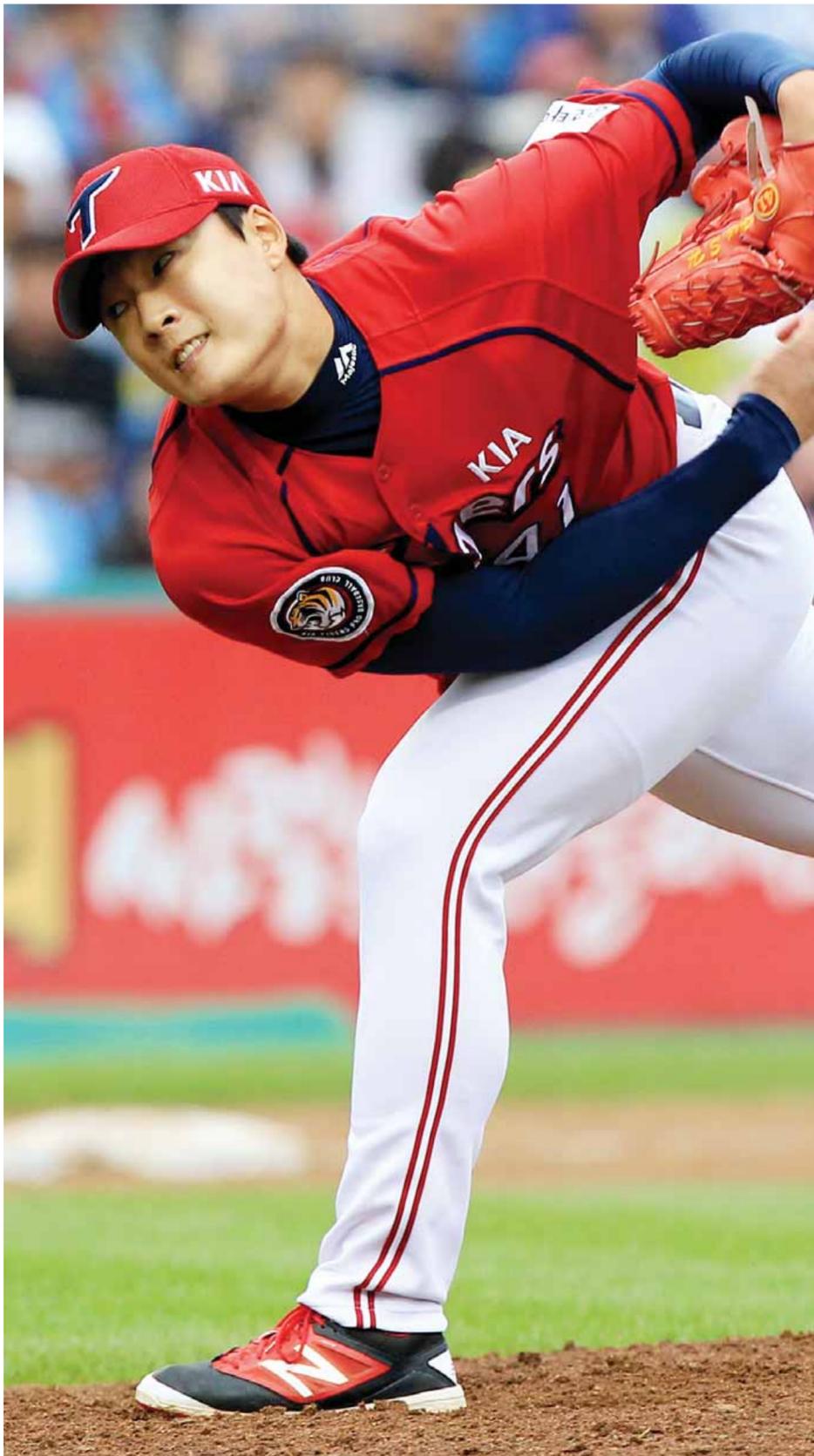
목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정근우까지 유격수 파울 플레이로 처리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루키 뒤에 기회가 왔다. 루키 최원준이 공격에 불씨를 살렸다. 대타로 나온 최원준이 바뀐 투수 윤규진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보내기 번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김호령은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실수를 만회했다. 김주찬이 땅볼로 허무하게 돌아섰지만 이범호의 고의 사구로 만들어진 1사 만루에서 폭투로 한 점을 보낸 KIA는 필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3-1로 리드를 잡았다.

이후 7·8회는 김진우가 피안타 없이 두 개의 탈삼진으로 책임졌다. 9회에는 마무리 임창용이 등장했다. 임창용은 대타 오선진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줬지만 정근우를 병살타로 처리한 뒤 허주석의 중견수 플레이로 승리에 필요한 아웃 카운트 27개를 채웠다.

한승혁이 12경기 연속(10.2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즌 3승에 성공했고, 임창용은 11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일 오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대 KIA 타이거즈 경기에서 KIA 투수 한승혁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 KIA 손영민 등 18명 파견

KIA 타이거즈가 ‘2016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에 1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투수 손영민도 애리조나에서 일찍 2017시즌 준비에 나선다.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에는 정회열 2군 감독을 필두로 김민호, 홍우태, 박재용 등 4명의 코칭스태프와 함께 투수 7명(손영민 손동욱 박기철 김중훈 박상욱 김현준 정동원), 포수 2명(권유식 신범수), 내야수 3명(박효일 김규성 류승현), 외야수 2명(이경록 오준혁)이 참가한다. 구단 프런트 5명도 선수단과 동행해 훈련을 지원한다.

인스트럭션리그 기간은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27일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솔트 리버 필드에서 진행된다. KIA는 SK와 연합팀을 이뤄 미국 10개팀과 19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10월 8일에는 중국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도 예정돼 있다.

선수단은 기술훈련과 함께 실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KIA 관계자는 “이번 인스트럭션리그 참가는 신인 및 유망주들에게 선전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가한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팀 전력의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오랜만의 등판 오승환

2이닝 무실점 시즌 5승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무리투수 오승환이 시즌 5승째를 챙겼다.

오승환은 1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글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1-2로 끌려가던 8회말 구원 등판해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오승환은 팀이 3-2로 역전승해 시즌 5승(3패 17세이브)째를 올렸다.

오승환은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등판한 경기에서 변함없이 등판한 모습을 보여줬다. 허벅지 근육에 통증을 느껴 10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결장해 왔다.

오승환은 8회 선두 타자 조 패닉을 2구 만에 2루수 뜬 공으로 잡았다. 버스티 포지는 초구에 우익수 파울 플레이로 돌려세웠다. 4번 타자 헨터 펜스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로 요러했다.

세인트루이스는 9회초 1사 1·2루에서 랜들 그리치의 중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콜튼 워의 희생플라이로 역전까지 성공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을 타석에도 서게 하며 9회말도 그에게 맡길 것을 예고했다. 오승환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말 오승환은 브랜던 벨트와 브랜던 크로퍼드를 내야 땅볼로 쫓아냈다. 이후 에두아르도 누네스와 디나드 스펠에게 잇달아 중전안타를 얻어맞아 2사 1·2루에 몰렸지만 코너 길라스피를 2루수 뜬 공으로 잡아내고 팀의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부상병동 KIA, 난세의 영웅 필요해

포수 백용환 십자인대파열 시즌 아웃 노수광·나지완·안치홍 등 빈자리 커

KIA가 다시 한번 부상 약재를 만났다. 이번에는 포수 백용환이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됐다.

지난 15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선 백용환은 3회말 3루 주자를 태그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백용환은 검진 결과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 6~7개월 정도가 필요한 큰 부상으로 20일 재검을 받은 뒤 수술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KIA는 토타자, 4번 타자에 이어 안방 마넛까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스타탄생을 알렸던 노수광의 부상을 시작으로 약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곤질길 승부와 남다른 스피드로 차세대 토타자로 눈 도장을 찍었던 노수광은 지난 8월13일 넥센 원정에서 도루 도중 왼손 약지가 골절됐다. 이후 KIA는 신중길, 윤정우, 안치홍, 김호령, 김주찬 등에게 리드 오프 역할을 맡겼지만 ‘악바리’ 노수광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다. 노수광이 판을 제거하고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KIA는 1번에 이어 4번 고민까지 하고 있다.

지난 7일 나지완이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것이다. 3일 롯데전에서 옆구리 통증으로 경기 도중 교체됐던 나지완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결국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실상가상 의욕적으로 재활에 나선 나지완은 재검진 과정에서 갈비뼈 미세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엔트리 등 록이 가능했던 18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연휴 기간 휴식을 취한 나지완은 다시 방방이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나지완의 복귀가 늦어지게 되면서 4번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범호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됐다.

여기에 예비역 안치홍이 등록 5일 만에 가래뿔 부상으로 빠지면서 기대했던 ‘안치홍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격수 강한울도 지난 15일 LG전에서 수비 도중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

마운드의 줄부상으로 어렵게 꾸려왔던 전반기, 시즌 막바지에는 야수진의 줄부상이 찾아왔다. 위기를 헤쳐나갈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 KIA의 숨막히는 가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엘로 더비’ 수중전 전남이 웃었다



K리그 클래식 30R

광주FC, 전남과 원정경기서 0-2패

하늘이 광주 FC의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허락하지 않았다.

광주 FC가 지난 17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빗줄기가 굵어진 후반전 페널티킥으로 자일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안용우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6경기 연속 계속된 무패행진이 중단됐다. 하늘이 원망스러운 경기였다.

전반전은 광주가 주도했다. 전반 19분 광주의 수문장 윤보상이 토미의 헤딩슛을 극적으로 막아낸 뒤 코너킥 찬스 위기까지 넘겼다. 이후 조성준의 타닝 슈트과 조주영의 매서운 슈팅이 전남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42분에는 이요프의 패스를 받은 조성준이 중앙에서 슈팅 기회를 맞기도했지만 어렵게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후반 ‘비’가 변수가 됐다. 빗줄기가 굵어지다 못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

가 쏟아졌다. 운도 없었다.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낡은 광양전용구장, 특히 후반전 전남이 사용한 진영의 그라운드 상태가 더 좋지 못했다. 눈에 될 정도로 물이 고이면서 광주 선수들이 의지대로 공격을 전개할 수 없었다.

패스도 슈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선수들의 헛발질이 이어졌고, 공이 그라운드를 떠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도치 않은 선수들의 ‘몸 개그’가 계속되면서 급기야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웃을 수 없던 광주였다. 전남의 공격이 전개되던 후반 29분, 물이 고인 그라운드에서 균형 잃은 선수들의 문전 경합

이 벌어졌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다. 아쉬운 페널티킥 판정 속에 광주는 자일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후 경기의 흐름이 전남에 기울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광주 공격의 매서움은 떨어졌고 후반 44분에는 전남 안용우에게 다시 한번 일격을 당하면서 경기는 0-2패로 끝났다.

남기일 감독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비가 와서 힘든 경기였고 운도 많이 따르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의 움직임도 부족했다. 이겨내야 하는데 선수들이 이겨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부담감이 많이 가졌던 것 같다. 체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